

강릉 갈바리의원

▶ 마음 담은 '사랑의 손수건'

봉사자 박세혜 님의 지도하에 손수건 스탠실을 하였다. '부채 만들기' 할 때 할아버지의 속마음 '할멈 사랑해'의 답례로 '영감 사랑해요'로 답하는 할머니의 마음! 손수건에 그 고운 마음이 예쁘게 수놓아졌다.



▶ 축일을 축하드려요!

임원 중이신 천인숙 마리아막달레나 님의 축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조출한 파티를 열었다. 예전부터 저희 갈바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은인께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대구대학교

▶ 6.13 월모임



'병원 봉사자 교육'에 9:00~18:00까지 봉사자 8명이 참석하여 박수덕 수녀님(성심수녀회)의 환자와의 대화기법, 환자와의 영적돌봄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은 후에 그룹나눔과 평가서 작성, 미사(손성호, 서동완 신부님 집전)시간을 가졌다.

▶ 7.11 월모임



10:30~13:30까지 5,6월 선종자 연미사를 드린 후에 봉사자 11명 참석하여 '유방암'에 대하여 서수진 의사(더불어외과원장)의 강의를 들었다.

모현 가정 호스피스

▶ 아로마 마사지



'많은 환자분들이 Day Care에 참석하여 맛있는 점심 식사를 나누는 후에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손마사지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본 뒤 각자 짝을 이루어 마사지 방법을 따라 해보며 좋은 향기로 기억되는 하루를 가졌었다.

▶ 원예 치료



5월 25일 Day Care에 원예치료를 하였다. 고향의 어릴 적 향수가 물씬 나는 보리와 함께 아름다운 꽃을 하나하나 바구니에 꽂으며 향기로운 꽃내음에 아픔을 잠시 잊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부산성모병원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야유회



5월 23일(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30명과 호스피스 팀원이 '사랑과 단합'이라는 이름으로 야유를 가졌다. 이기대 바닷가를 계획 했으나 우천 관계로 4층 베네딕트 홀에서 식사와 단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하루를 보내며 요일별 팀의 장기자랑 등으로 단합된 모습들을 보였다. 마칠 즈음 날씨가 개여 삼삼오오 팀별로 짝을 지어 이기대 해안 도로를 산책한 후 팔방수 파티로 야유회를 마무리하였다.

▶ 통증 캠페인 실시



5월 27일(금) 연산동 지하철 역, 6월 3일(금) 10층 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6월 7일(금) 병원 1층 로비에서 통증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국립암센터에서 협찬하는 각종 통증 리플릿과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해서 '통증을 말합시다. 암성통증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란 현수막을 걸고 캠페인을 벌였다.

▶ 제31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증례발표 실시



7월 8일(금) 19:00~20:30 본원 4층 베네딕드홀에서 제31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증례발표를 가졌다. 김호균 부·울·경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회장님과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감사이신 김혜자 수녀님, 김영재 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 등 내외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정현주 센터장의 진행으로 안윤문 팀장의 완화의료센터 및 환자소개에 이어, 이경우 과장의 진료부분, 하미혜 수간호사의 간호부분, 황윤희 복지사의 사회복지부분, 마르코 수녀님의 영적부분, 김영희 봉사자의 자원봉사 부분이 차례로 소개되면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호스피스를 실천하는가를 직접 사례를 통하여 보여줌으로 호스피스와 팀원의 역할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삼성 한울림 오케스트라단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제4회 정기연주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정원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통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 “2011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3일간의 교육에 임하며 삶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값진 시간을 마무리하며 7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성이시들 복지의원

▶ 하느님의 자녀로 축복 받은 날!!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맘, 미약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환한 미소와 사랑을 주고 받으며, 용서를 청하며 환자 어르신들이 자그마한 소원과 더불어 축복을 받는 날이었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 제주도 호스피스 봉사자 피정



호스피스봉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4월 29일~5월 1일 3일간 제주 면형의 집으로 함께 봄 피정 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제주항에 도착하여 곳자왈에 가서 기차를 타고 저녁식사 후에 호스피스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날 성이시들의 새미은총의 동산, 김대건 신부 표착기념관 등을 순례하고 마지막 날에 5코스 올레길을 걸으며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서로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3일간의 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 사별가족 야유회



호스피스병동에서는 지난달 5월 20일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사별가족을 초대하여 구례

칠불사를 다녀왔다. 이슬비가 내려 계획이 좀 바뀌었지만 칠불사에 도착하여 푸르름이 짙은 고목나무 아래 연못 옆에서 간호사와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한 후, 사별의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서로 함께 나누고 레크리에이션을 한 후 하늘나라에서 계신 분들에게 풍선편지를 올려 보내며 뜻 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다.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지난 6월 15일~17일 3일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이 있었다.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장님을 모시고 '호스피스의 이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60여명의 수강생이 열린 호응 속에 열심히 강의를 듣고 유서쓰기를 통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 이 지역주민들에게 호스피스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천주의 성요한병원

▶ 제14회 대학생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개최

대학생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자원봉사자 교육에 30명이 참여하여 수료를 하였다.

▶ 호스피스 '하늘빛 사진전' 전시회 개최

2010년 본원 호스피스센터에서 부인과 남편을 사별



한 가족 2분이 함께 모여 호스피스 관련 사진과 자연 풍경 사진전을 병원 1층 로비에서 5월 16일 ~ 31일 까지 전시하였다.

▶ 호스피스 개원 14주년 추모미사 및 사별 가족 모임
5월 20일 호스피스 개원 14주년을 맞이하여 사별 가족들을 초대하여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동영상 상영 및 공연, 식사 시간을 가졌다.
약 70여명의 사별 가족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성바로로 가정호스피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5월 23일~25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노원구 노원성당 강당을 빌려 실시한 교육에는 60여명이 참여하였다.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하여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교육생들의 열정은 교육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들은 강사님들의 열강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 성모의 밤



5월 28일 본 센터의 성모님 동산에서 사랑나눔 가족인 후원자와 환자가족, 사별가족,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성모님의 자애심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1부에는 성모님의 자애심을 기리는 강론과 헌시낭독, 꽃과 초 봉헌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색소폰 연주와 성가 선교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감상하며 떡과 과일을 나누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사별가족 모임



7월11일 본 센터 해바라기실에서 사별가족 모임을 가졌다. 우리 센터에서 돌보다 선종하신 분들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각자가 가진 추억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으며, 먼저 겪은 이들의 경험담을 위로삼아 고인을 생각하며 풍선을 붙여 고인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며 못다 한 말을 적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 제1회 대전NGO 축제 참가



5월14일 NGO활동을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민관협치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 하고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주최한 제1회 대전 NGO축제에 100여개의 NGO단체와 더불어 본 협회도 참여하여 체험관 부스를 설치해 통증에 관한 O,X 퀴즈와 호스피스단어를 이용한 사행시 짓기, 호스피스활동 사진전시, 호스피스 각종홍보물 배포 등으로 일반시민에게 호스피스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 다음카페 개설



고통과 고독을 짊어지고 떠나야하는 삶의 마지막 여정의 동행자로서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나누고 싶을 때 지친 맘을 잠시 식

혀줄 on line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와 호스피스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카페 가입 방법 : Daum에 가입하신 후 카페 검색란에 '가톨릭호스피스' 혹은 'cafe.daum.net/kcha1991'를 써 넣으시면 가톨릭호스피스 카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가톨릭호스피스인들의 편안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신입회원

- 영남대의료원가톨릭원목실 (5/13)

▶ 후원회 신입회원

- 일시납 회원 : 김평만(5/19), 김열(5/24)
- 찬조금 : 한옥순(5/6)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